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강원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스무숲도서관	여행의 이유/김영하/문학동네	자기 속에 타자의 관점을 지니는 것, 그 대상이 장소일 경우 그것은 전통적으로 여행과 결합된 경험-전능의 환상 속에서 미지의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에 대립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경험을 우리는 탈 여행이라 명명할 수 있을 터. (p.114)
2	철암도서관	더 셜리 클럽 / 박서련/ 민음사	뱀머린 아주머니가 공장에서 나를 위해 항의해 준 건 더 셜리클럽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우연히 영어 이름을 셜리라고 지었을 뿐인데 오랫동안 누적된 은행 이자 같은 그 두둑한 애정을 거저 받는 거고 (p.137)
3	뒤뚜르어린이도서관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고티에 다비드/마리 꼬드리/모래알	"나의 새에게" "너의 곰이"
4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떠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오소희/북라이프, 2021.	"나는, 삶에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무엇을 꼭 지키고 싶은가?" (p.226)
5	꿈마루 도서관	유라시아 라이더/최지훈, 최정환/소원나무, 2019.10.30.	"아저씨들은 우리를 엇그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잘해 주는 이유가 뭡까요?" "러시아에서는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그래. '올 바이커스 알 브라더'라고 '모든 바이커는 형제다!'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를 잘 대해 준 것 같아." (p.38-39)
6	앞짱어린이도서관	잃어버린 여행가방/박완서/실천문학사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가방안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p.63)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책돌이도서관/신화숙	오기사, 행복을 찾아 바르셀로나로 떠나다/ 오영욱/위즈덤하우스	건축을 전공한 오영욱의 바르셀로나에서 1년 살기.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했던가.. 2026년 성가족 성당이 완공되면 오기사가 그린 광장, 북카페,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독서하기 전에 미리 앉아서 하는 여행을 즐겨보시길.....
2	아이숲어린이도서관/문상희	방구석 미술관/조원재/블랙피쉬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의 작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는 책. 작가 위주로 어떻게 그 작가의 작품세계가 형성되었는지 알려주는 책. 오르세 미술관으로 떠나는 그림여행.
3	책문화공간 봄/위명화	헤세로 가는 길/ 정여울/ 아르테	구름이 땅과 하늘 사이에서 망설이고 동경하고 저항하면서 자랑스레 걸려 있듯이 우리 영혼 또한 시간과 영혼 사이에서 망설이고 동경하고 저항하면서 자랑스레 걸려 있다고. 구매해야 할 것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책을 읽다 보면 내 고민을 알고 적었을까? 나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네 마음을 다 안다고 다독여주는 문장이라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 '헤세로 가는 길'이 저에게는 그런 책입니다. 아울러 책 속의 사진들을 보며 헤세가 살았던 칼프, 루가노, 몬타놀라를 여행해보는 즐거움이 가득가득한 책입니다.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에다움작은도서관/백정희	우리의 사람들/박솔미/창비	어느날 나는 맑은 하늘 아래로 걷다가 언젠가부터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해변가를 걸었다.
2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여행의 이유/김영하/문학동네	모든 여행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게 무엇이었는데를 알게 된다.
3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최재원/자기만의 방	여행자의 눈으로 그 동네를 걷다 보면 곁에 두고도 몰랐던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4	온가족비전도서관/박다운	우리가족캠핑여행/백은희/비룡소	나한테는 일기도 있고 그림책도 있으니까 이 여행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
5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하정/좋은여름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절묘하게도 매번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6	책놀이터작은도서관/박미숙	나는 한때 /지우/반달	한때 나는, 여러 가지 이름이었어. 나는 한때 새싹이었고, 망아지였다가, 불타고, 노을지고, 터지기도 했어. 여행을 떠나 이상한 곳에 도착하기도 했지.
7	에다움작은도서관/김희정	아이슬란드 너는 나에게 뜨거웠다 /박종성/ 디자인이음	언어가 없이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소통은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8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카사블랑카에서의 일 년-칼리프의 집/타히르 샤 글/알다이르 옮김/ 훗	나는 언어 문제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무리의 정령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개인회원/손수정	버스/남윤원/시공주니어	어린 시절 버스는 일상이기도 했지만, 변화하는 계절의 풍경을 보며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어쩔 땐 일부러 멀리멀리 타고 가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던 버스 돈 없고 차 없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가깝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고마웠던 수단인 버스입니다.
2 예성작은도서관	100 인생 그림책/하이케팔러/사계절	22.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다면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떼어야 해. 45. 지금 그대로의 네 모습을 좋아하니? 81. 이제는 나이를 한 해 한 해 세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보내는 순간순간을 세고 있다고?
3 개인회원/김경희	어디로 가게 /모예진 그림책/문학동네	일상을 지키며 사느라고 선뜻 떠나지 못하는 우리. 떠나지 못할 이유는 백가지가 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디로든 갈수있겠지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4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우물 밖 여고생 / 슬구 글, 사진/ 푸른향기	비행기를 타는 게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은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일지라도 그곳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그건 여행이에요.
5 책마실도서관	여행 가는 날 /서영 글, 그림 / 위즈덤하우스	사람이 태어나 한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여행 바로 죽음 앞에 선 할아버지의 하루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밤이 꽤 깊은 시각 누군가 할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책을 읽을 때는 슬픔이 물려왔지만,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신기하게도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림책입니다.
6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 불어숲	자전거 여행2/ 김훈 지음 ; 이강민 사진 / 문학동네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대나무는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7 그나라어린이도서관	여기보다 어딘가 / 거스 고든 지음 김서정 옮김 / 그림책공작소	"우리 내년 겨울에는 어디로 갈까?" 파스칼이 묻자 조지는 웃으며 말했다. "어딘가 다른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8 해봄도서관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최갑수/보다복스	여행을 하며 깨달은 건 삶은 모험이라는 것 모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	나의 핀란드 여행/가타기리 하이리/은행나무	인간, 신용을 받으면 나쁜 짓들 할 수 없게 된다.... 아무것도 모른 채 던져진 도시에서 몇 번이나 의심을 모르는 참새 같은 사람들의 상냥함을 접했다.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일단은 즐기고 보련다/황안나/예담	나이만큼 저도 아픈 곳이 많아요. 특히면 허리가 결리고 엉치뼈도 아프죠. 그럼에도 떠나는 거예요. 느리고 무겁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걷다보면 마법처럼 도착지에 와 있어요.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혜령	그래봤자 개구리/장현정/모래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까. 내가 누군지. 나는 언제쯤 날 수 있을까. 그래, 지금이야.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백영숙	그림 여행을 권함/김한민/민음사	분주함은 여행 최대의 적이자,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바빠서 못 떠난다는 건 말도 안된다. 바쁠수록 떠난다, 가 맞다. 우리는 고삐 풀린 일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다시 우리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여행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p.37) 나의 캐릭터를 쉬운 그림으로 만들어서 여행의 준비부터 쉽게 그려보자는 작가의 말을 따라하며 떠나고 싶어지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을 살지만 큰 숨을 쉬며 멀리는 못가도 뒷산, 산책로 등을 걸으며 주변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순례자/파울로 코엘료/문학동네	인간은 결코 꿈꾸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은 꿈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살아사는 동안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실망하고, 충족되지 못한 욕망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요. 하지만 그래도 꿈꾸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아가페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니까요. (p.78)
6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채은아	계절의 냄새/양양 /노란상상	내가 모은 계절의 냄새를 맡아 봐 주셨었고, 알싸했고, 바스락거렸으며, 포근했던 냄새들.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이 모두 여기에 있어.
7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예서	알면 보이는 명화/햇살과 나무꾼 지음/한울림어린이	이런 시대에 사임당은 마당에 깃들인 작은 생명들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해 냈다. (p.30)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작은도서관 함께놀자/박계순	세계서점기행 (김언호 글.사진 / 한길사)	<p>조지 휘트먼은 서점을 열면서부터 갈 곳없는 작가들과 배고픈 지식인들을 위해 수프를 끓였다. 서가와 책 더미 사이에 간이침대를 놓아 잠잘 수 있게 했다. 조지 휘트먼은 자신의 서점을 '잡초여관(Tumbleweed Hotel)' 이라고 불렀다. 가난한 잡초들에게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삶과 사유의 안식처가 되었다. 이곳을 거쳐간 잡초들이 3만명이나 된다니. 지금도 하루 여섯 명씩 머문다.</p> <p>서점에 머무는 잡초들에겐 세 가지 일이 주어진다. 하루에 책 한권 읽기, 두 시간씩 서점 일 돕기, 한 장짜리 자서전 쓰기 가 그것이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이렇게 쓰인 자서전 1만여장을 보존하고 있다. (중략)</p> <p>2006년 프랑스 정부는 실비아 비치의 뒤를 이어 서점의 영원한 전설을 구현해 낸 조지 휘트먼에게 '예술과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책은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 라고 말하곤 했던 조지 휘트먼은 2011년 98세로 별세했다. 영국에서 유학하다 2001년 연로하신 아버지 곁에 있기 위해 파리로 돌아온 외동딸 실비아 휘트먼은 2005년부터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중략)</p> <p>"아버지가 서점이고 서점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전 세계에 수많은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인류를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너는 여행 안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책 읽는 것이 여행이라면서요. 그러나 아버지는 지극히 내성적이셨습니다. 행사할 때면 아버지는 구석에서 책을 읽었습니다."</p> <p>- p.87~89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 파리, 프랑스)</p>
2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자영	방랑자들(올가 토카르추크, 민음사)	"멈추는 자는 화석이 될 거야. 정지하는 자는 곤충처럼 박제 될 거야. 심장은 나무 바늘에 찔리고, 손과 발은 핀으로 뚫려서 문지방과 천장에 고정될 거야....움직여, 계속 가. 떠나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니."
3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백현진	히말라야 환상 방황 / 정유정 /은행나무	태양이 뜨거웠다. 골짜기의 바람이 차가웠다. 길가에 흐드러진 가을꽃은 야속하게 예뻐다. 하늘은 파랗고, 설산을 서성이는 구름은 하얗고, 나무들은 진초록 이파리를 짙랑거렸다. (p.252)
4	용강동작은도서관/손선미	관계의 물리학/림태주/웅진지식하우스	<p>여행과 관계의 본질은 닮았다.</p> <p>여행도 관계도 처음엔 새로운 걸 좋아하지만 나중엔 낯설지 않은 곳을 다시 찾게 된다.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흥분과 탄성을 자아낸다. 그러다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감정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으면 아늑하고 평화로워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를 여행하는 이유는 내면의 고요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닐까. 언제나 그곳에 머물 필요도, 언제나 그 사람에게 소속될 이유도 없다. 그곳의 설렘과 그에 대한 떨림과 좋았던 기억을 잊지 않으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의 씨앗을 얻을 수 있다.</p>
5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성광작은도서관/ 김기순	우리 다시 여행하게 될 거야/ 김영미/ 두사람	여행은 어쩌면 일상이 꾸는 꿈일지도 모르겠다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6	꿈틀어린이도서관/이소영	고미숙의 로드클래식, 길 위에서 길 찾기/ 고미숙/ 북드라망	걸리버가 쉬지 않고 여행을 떠난 것도 이 때문이다. 삶을 한없이 사랑하지만 도저히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떠난다. 어딘가 또 다른, 더 나은 세계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그런 세계는 없다! 거인국이건 라퓨타건 호이닝이건 모순과 부조리가 없는 세계는 없다. 어쩌면 세계는 부조리함 자체일지도 모른다.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전혀 다르게 사유할 수 있으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으므로. 그래서 떠나야한다.
7	흥부네그림책도서관/김진희	예술의 도시, 파리/에릭 바튀 지음/빨간콩	"모든 것은 가능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다" (소감) 그림책으로 여행을 대신 한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그날을 꿈꾸며.
8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화모니 음민서	아줌마! 왜 혼자 다녀요?/만옥/MANWOOK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용기있게 떠난 만옥 작가 멋지다
9	와글와글작은도서관/김세희	네 눈동자 안의 지옥/캐서린 조/창비	저자 캐서린 조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남편 역시 그러합니다. 이 부부는 한국식 금기를 모조리 어기고, 두달 된 아기를 안고 런던을 출발해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장기 여행길에 오릅니다. 마침내 마지막 목적지에서 백일잔치를 앞두고, 저자는 갑자기 아들의 눈 속에서 악마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졌으며, 남편을 구출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어요. 그러다 결국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지요. 이 책은 병동에서 보낸 하루하루를 복기한 기록입니다. 저자는 퇴원 이후에도 아이를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솔직하고 어두운 기록을 읽으며, 모성에는 여전히 더 많이 말해져야 한다고, 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10	도담도담 작은도서관/권영미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무라카미하루키/ 비채	여행 준비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되도록 짐을 줄이는 것이다. 나는 평소 해외여행 시에 갖고 갈 옷을 미리 준비한다. 여행 도중에 버릴 수 있는 옷 말이다. 티셔츠나 양말이나 속옷은 '이건 이제 필요 없겠네'싶은 것들을 모아서 챙겨 간다. 그리고 입고 버린다. 빨래하는 수고도 덜고 짐도 줄이고 일거양득이다. 다만 여성의 경우 신혼여행 같은 데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귀찮아서 이제 버릴 때가 된 속옷만 갖고 왔어. 무리카미씨도 그랬잖아." 이런 사태라면 남편이 경악할지도 모른다. 무리카미라니,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될지도. 그 점은 상식선에서 잘 판단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주세요. 되도록 무리카미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다만 일단 빨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꼼꼼하게 빨기, 이것이 원칙이다. 잠이 날 때 사사삭 빨아 바스타일로 돌돌돌 롤케이크처럼 말아 그 위에 서서 힘껏 밟는다. 그렇게 물기를 짰 뒤에 말린다. 그러면 빨리 마릅니다.
11	초록나라도서관/백은숙	틱낫한의 평화로움/틱낫한/열림원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2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송은영	여행의 이유/김영하/문학동네	여행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잠시 잊어버리려 떠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이귀연	밥장님! 어떻게 통영까지 가셨어요?/밥장/ 남해의봄날	안정되면 권태롭다. 설레면 두렵다. 설렘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안정과 설렘만 떼어 내 한 바구니에 담을 순 없다.
2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하현숙	열하일기/박지원/보리	세 사람이 걸음을 함께하면 반드시 제 스승이 있는 법이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단단하기가 쇠라도 끊는다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한 낙이 어 데 있었습니까? 사람이 한평 생애 친구 못 가진 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또 어데 있었습니까?
3	책마루작은도서관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태원준/북로그컴퍼 니	첫발만 내디디면 될 것을, 그동안 왜 그리 고민했을까.
4	책사랑작은도서관	여행/신형건/미세기	왜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냐구요. 이게 여행이지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꿈나무도서관/김광원	옥스퍼드 중국사수업/폴 로프지움/강창훈 웁김/유유	
2	늘푸른어린이도서관/박소희	내가 지구별에 온 날/ 나비연/있는 그대로	삶은 여행, 나 지금 여행하고 있으니 나의 몸은 여행가방 오늘 무엇을 담을지 설레는 여행가방
3	짱뚱이어린이도서관	오리건의 여행 라스칼 지음/루이 조스 그림/미래M&B	*책 속 한 줄 1. 붉은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나는 반 고흐의 그림같은 풍경을 헤치고 갔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 별 빛 아래에서는 꿈도 꾸었습니다. 새소리는 잠을 깨우는 시계였고, 강물은 우리의 커다란 욕조였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 것이었습니다. 3. 아침이 하얗게 밝아오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4	푸른마을함박도서관/김지선	나와 당신의 작은 공항/안바다/푸른숲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아직 제대로 가본 적 없는 그곳에서 그들과 우리의 내밀한 감정을 적어갈 수 있기를, 조금은 외롭고 낯설지만 따뜻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5	콩세알도서관/문점숙	길 위의 43(제주올레 10코스에서 17코스 까지)/저자: 허호준, 김은희, 오화선/제주 4- 3연구소 엮음	"어둠이 깊어질수록 통증이 깊어진다"는 시인의 말에 가슴이 아려온다. 별바른 날, 무명천을 싸맨 채 울담 아래 쪼그려 앉아 먼 곳을 응시하던 할머니를 생각한다. 그녀는 무엇을 봤을까.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평이 배추밭에서 푸드덕 날갯짓하며 날아간다. 마주치는 이가 없으니 마음이 한결 여유롭다. 바람 소리와 밭, 돌담이 벗이 된다. 선운정사 앞에는 코스모스와 자주색 달개비가 한아름 피어 눈길을 끌었다. 밭에서 가동하는 스프링클러의 물이 바람에 흩날려 얼굴에 묻는다.
6	자람도서관/전민성	여행가는 날 /서영 글.그림/위즈덤하우스	걱정말거라 나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거야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제주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설문대어린이도서관/김세희 (중1)	우리 목소리는 파도가 되어/ 해안, 서호선 외 / 열다북스	학생들의 움직임을 통해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
2	설문대어린이도서관/김나혜(초3)	하치이야기 / 신도 가네토 / 다사함	하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하지 않았다. 하치의 몸 위에 눈이 새하얗게 내리고 있었다.
3	설문대어린이도서관/김민준 (초1)	행복을 찾아 떠난 당나귀/이자벨 그를레/ 동심	당나귀야, 고마워. 모두 즐거운 여행되렴!
4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유정(활동가)	마가스님의 마음충전/ 마가 / 숨	입의 역할 : 입은 뿔다 뭐하나?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페이스 조절: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5	설문대어린이도서관/안수일	작은씨/ 이형진/ 시공주니어	엄마도 처음엔 작은 씨였다.
6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김미영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 랄프 왈도 에머슨/ 씩크뱅크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완벽한 온화함을 유지하며 고독하게 홀로 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7	설문대어린이도서관/김연서 (초6)	마루타 소년/ 임지형 / 아이앤북	"아버지, 경복이는 심장을 나눈 친구예요. 부탁이에요. 경복이를 살려 주세요." 죽기 전 테츠오는 안 나오는 목소리로 간곡히 부탁을 했다.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성성푸른도서관/박민주 도서관 여행하는 법/임윤희/유유	도서관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꿈꾸는 세계 속 도서관들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읽기도 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들었던 생각과 작가가 이야기하는 도서관의 정체성과 역할등에서 공감되는 점이 많아 후루룩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휴식하듯 펼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바라기도서관/홍근옥 아빠랑 은별이랑 지리산 그림여행/오치근, 오은별/ 소년한길	화가이자 이 책의 작가인 오치근과 그의 딸 은별이랑 함께 아빠의 고향인 남원시 운봉을 시작으로 아홉 마리 용이 노닐던 용호구곡 하늘 아래 첫 동네 성삼재, 우리나라 최초의 선종 사찰 실상사, 토지의 무대 최참판댁, 민족의 수난을 함께해 온 화염사, 지리산 둘레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까지, 아빠와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만나는 자연과 전해 내려오는 설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듣고 보고 그리곤 아빠와 함께 그림까지 그린다. 화가인 오치근작가는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림이고 예술이라는 생각을 한다. 땅을 일구려 농사를 짓는 일은 생명과 삶을 까꾸는 그림임을 지리산 자락의 이웃들과 농부들을 보며 알게 되었다 한다' 이렇게 아빠와 함께 고향인 지리산 둘레를 걸으며 보고 느끼는 잔잔함과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지리산 둘레길을 나도 걷고 싶다는 마음이 폭폭 올라온다.
3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펠릭스의 세계여행/글 아테네 람엔 그림:콘스탄차 드로프/아가월드	지금 상황에선 세계여행 꿈도 못꾸죠~~가족과 함께 세계지도 펼쳐보며 간접경험으로 떠나보는 세계여행! 어떠세요? 주인공 펠릭스가 세계여러곳 런던 파리 로마 카이로 케냐 뉴욕에서 소피에게 편지를 보내요 펠릭스가 여행한 나라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4	솔멩이골 작은도서관/빈혜영 여행의 이유/김영하/문학동네	여행을 자유롭게 못하게 되는 지금의 시간속에 과거의 여행을 추억하며 내가 여행을 하고 싶었던 이유들을 곰곰히 생각해보게하는 책이었습니다~ 남들 다 가니 가는 여행이 아니라 나만의 "이유"를 간직한 특별한 여행을 꿈꾸어봅니다~
5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권민정 태도의 말들/엄지혜/유유	소설을 쓸 때 고요할 필요는 있지만 청정지역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극을 받아도 그게 제 안에 무언가를 남길 테니까요. -소설가 김애란-
6	범지기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윤나영 나를 부르는 숲/빌브라이슨/웬진이: 흥은 책/까치	미국 애팔래치아 트레일 중주 중 생기는 다양한 일들과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을 분명히 재미있어 뽕뽕 터지는데 진지한 작가의 어투로 적었다. 장항중 감독이 추천한 최고의 책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여행책이다. 그리고 책을 덮는순간 작가와 함께 한 친구 카츠가 궁금해서 검색하게 된다.
7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이븐 바투타의 여행/제임스 림포드 웬진이: 김경연/풀빛	14세기 모로코 사람 이븐 바투타는 평생동안 세상을 여행하면서, 여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의 가치만으로도 의미가 큰데,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 만큼이나 신비롭습니다. 글과 그림이 모로코의 타일처럼 기묘하게 어우러져 여행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아쉽게도 그림책은 절판이 되어 도서관에서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완역본으로 창비 출판사의 이븐 바투타의 여행 1 2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호남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간일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여우네도서관/김명숙	당신에게,여행/최갑수/꿈의지도	평화롭고 한가롭기만 한 풍경을 바라보며 느린 걸음으로 걷는 일, 어쩌면 이런 사소한 일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2	삼성동어린이작은도서관/최민정	방구석미술관/조원재/블랙피쉬	예전에는 이런 행운을 누려본 적이 없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만큼 파랗고 유황빛으로 반짝인다. 천상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푸른색과 노란색의 조합은 얼마나 부드럽고 매력적인지.